

닛신보 - 항주일면에 실부터의 일관생산체제 갖춰

닛신보가 중국 저장성(浙江省)에 33% 출자한 방직편가공합판(紡織編加工合辦)의 항주일면(杭州一綿)은 5만 추를 밑도는 방적기와 직기의 일부를 교체함으로써 직기에서 생산된 생지(生地)직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. 닛신보는 현재 생지직물만을 이 공장에서 가공하고 있는데, 방적 및 제직시설에 투자하여 품질이 향상되면 방적부터 가공에 이르기까지 일관생산을 맡기게 될 것이다.

항주일면이 가동하고 있는 에어젯(air-jet)직기는 2001년에 164대였었는데, 2003년에 180대로 늘었으며, 2004년 상반기에는 205대로 늘릴 계획이다. 한편 2002년 말에는 가동이 정지된 북(shuttle)직기 360대는 전수 처분되었으며, 48대의 래피어(rapier)직기는 계속 가동하게 되었다. 이와 같이 직기를 경신(更新)함으로써 월 180만m 생산능력을 200만m로 늘리게 된다. 이와 같은 제직시설 경신계획에 맞추어 방적설비도 일부 경신하게 된다.

닛신보는 현재 항주일면에서 생산된 방적 및 제직품의 품질수준이 낮아서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, 이들 생산시설이 보완되고 품질이 향상되면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. 강소성(江蘇省)에 있는 33% 출자한 방직합판인 상주명력(常州名力)은 제직한 생지직물을 항주일면에서 가공하고 있다. 직물의 품종은 스트레치(stretch)직물, 코머 2합사로 짠 면능직물인 치노(chino), 3/1 면능직의 카키색 미육군사관생도 제복감인 웨스트 포인트(west point), 코듀로이(corduroy : 속칭 골덴) 등이다. 이들 직물은 일본계 봉제공장에 공급해 주고 있다. ♣